

발포명령자·암매장·민간인 집단학살 등 전면 재조사

풀어야 할 5·18 미안의 과제

우리는 보았다. 1980년 5월 지옥 같았던 '광주'의 참상을.

우리는 하나로 맞섰다. 진압불과 총칼을 앞세운 무차별적인 계엄군의 폭력에 바다처럼 출렁이며 서로 나눠 먹고, 함께 울며, 앞으로 나아가면서. 광주는 역사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이만큼이라도 드높이, 푸르게 자라게 한.

하지만, 해마다 5월이 오면 광주의 심장은 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린다.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무덤덤해질 만도 하건만 올해도 여김없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편향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혹의 세월 속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투쟁을 거쳐 5·18의 진실은 정권의 교체를 통해 인정 받았다. 주요 법적·행정적 제도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지만 아직도 풀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4차례 조사(1988년 국회정문화, 1995년 검찰조사, 2007년 국방부와거사 진상규명위원회,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남아있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40주년을 맞는 올해, 반드시 풀어야 할 5·18 미안의 숙제를 정리해본다.

계엄군 명단 확보·실탄 지급 명령체계 등 집단발포 경위 조사 최규하 전 대통령 개인기록·신군부 핵심인물들 행적 밝혀내야 민간인 집단학살 최소 6건...공식적인 희생자 숫자도 확인 안돼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부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쓰러졌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엄군내에서 시민들을 향한 사격을 명령한 이는 밝혀지지 않았다. 광주 상공에서 시민들을 향해 쏘던 헬기사격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전두환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은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과제임에도 40년째 물증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5시에 광주교 부근에서 11공수 63대대 장교가 쓴 최초 발포, 20일 광주역 집단 발포,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의 명령권자와 지휘체계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1980년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찾고,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18 당시 핵심인물들의 행적 및 발포 명령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특히 전두환 광주 방문설을 비롯해 당시 신군부의 핵심인물자들의 명단과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특전사령관인 정호영이 광주를 방문해 지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계엄군의 지휘체계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계엄군의 발포는 자위권의 일환이라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또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병사와 간부들의 명단을 확보, 부대 동선을 따라 계엄군들의 모든 진압작전을 재구성하면서 실제 일어난 발포사건 등을 확인하고 발포 실태를 특정해야 한다.

여러 정보기관(보안사, 중앙정보부, 계엄사 치안처, 경찰, 검찰 등) 보고경로와 내용을 확인, 시민군을 가장한 계엄군으로 알려진 '편의대'의 실체를 규명하고 지시·첩보보고 체계도 밝혀야 한다.

◇사망사건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8일~27일

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1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5·18 당시 광주·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및 사망사건 중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된 153명, 행방불명자 인정자 중 신원이 확인된 6명, 무연고 신원미상 사망 5명, 실제로는 5·18 기간에 사망했으나 상이후사망자로 보상인정을 받은 1명 등이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해 165명이 이 기간 발생한 정확한 사망자 수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5·18연구자들에 따라 사망자 숫자는 차이가 있다. 또 사망자 165명 중 일부는 그 정확한 사망 일자·장소·경위 등이 확실치 않아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돼, 오히려 유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5·18민주화운동에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153건의 사망자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와 소재, 생산 이력을 추적해 사망자 기록의 변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18사망자 검시기록에 대한 검토 및 원본 대조를 통해 사망자별 시신 수습과정, 사망 일자·장소·경위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법의학 전문가, 군사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원인 등도 판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5·18기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망사건을 밝히는 데는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부대인 제 3·7·11공수특전여단, 20사단, 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예하 부대 등 편제·병력·부대원을 파악하고 세부 작전 및 기타 활동 내역의 기록물 등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5·18기간 중에 자행된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은 최소 6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5월 20일 밤 11시 30분께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인 3공수여단은 시위대에 의해 수세에 몰리자 시위대열과 무관한 주택



1980년 5월 21일 낮 12시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버스를 앞세우고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군이 도청앞에 저지선을 만든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한 시간 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980년 5월 24일 시민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전경들의 방석모를 쓰고 차량에 탑승한 채 출동을 대기하고 있다. 보수 인사 지만원씨는 사진의 왼쪽인물을 특수 임무를 띤 북한군으로 지목, '제1광수'(광주 북한특수군)라는 명칭을 붙여 5·18외곽 보도에 활용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가를 향해 M60기관총을 쏘 4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5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도 광주 시내에서 체포한 시민들을 대검으로 살상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해 방치 후 사망에 이르자 암매장을 했다. 또 전남대에서 사망한 2명의 고등학생은 이학부 건물 뒷산에 가매장되기도 했다.

또한 20사단 병력이 22일 광주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는 작전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화정동·내방동 주택가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최소 8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주남마을은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학살이 이뤄진 장소이다. 22일과 23일 사이 총격에 의한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으나 현장에서 사망한 공식적인 희생자 숫자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3일에는 해남군 우슬재와 북평리에서 매복하고 있던 31사단의 총격에 의해 박영철·김귀환씨 등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계엄군간의 오인교전이 벌어졌고, 이후 11공수여단이 이 일대 주택가를 수색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그러나 1988년 국회정문화, 1995년 검찰조사 등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과 당시 최용 11공수여단장 등은 민간인집단학살은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전면 부정했다.

40년 동안 5·18기간중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증언, 언론보도 등이 넘쳐나지만 명확한 진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민간인집단학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계엄군의 발포가 자위적 수단이라는 주장과 5·18은 북한군이 투입해서 일어났다는 주장 등의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학살에 대한 진실은 곧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지대에 대한 진실과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7면으로 계속



국립5·18민주묘지 중앙에 있는 40m 높이의 5·18 추모탑. 추모탑은 우리나라 전통석조물인 당간지주 형태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형상화한 것으로 중앙 부분 감싸진 손 모양의 내부에 설치된 난형의 조형물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